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6·4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지역 민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 간의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드라마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적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운태 시장과 이용섭 국회의원은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리턴 매치'에 나가고 있다. 지난번 광주시장 경선에서는 후보인이 이 의원인 고배를 들었다. 0.45%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재심까지 가는 '헐투'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이 깊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여기에 김운태 광주시장과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죽마고우다. 그동안 광주의 현안 등을 놓고 서로가

호남 정치의 '클래스'를 보여달라

깊은 소통을 이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섭 의원과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지적 관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소통'은 그리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외'라는 평가다.

경선 결과에 정치적 운명 걸려

관전 포인트는 이번 경선 결과에 각 후보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강 시장에 있어 경선 패배는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도 이번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패배시 그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밥 지을 솜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리אות한다는 파부집주(破釜沈舟)의 형국이다.

윤장현 새정치연합 이사장도 이번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정치적 현실에 비추어 시민사회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기초의회(서구) 의원까지 지낸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경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인연도 남다르다. 이낙연 의원(4선)과 주승용 의원(3선), 김영록 의원(재선)은 광주일고 선후배다. 이

의원이 45회, 주 의원이 46회, 김 의원이 48회다. 세 후보는 선후배를 떠나 서로의 정치적 안방인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넘나들며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의원과 주 의원은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람 모두 전남지사 도전에 대한 진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원직을 내건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은 경선 결과에 따라 정치관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다.

이들의 의원직 사퇴는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부를 전망이다. 의원직 사퇴가 이뤄진다면 오는 7월 전남지역 두 곳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

'감동의 드라마' 연출해야

여기에 중진 의원들의 사퇴는 차기 총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적 인연과 거름급 인사들의 정치적 명운 등이 겹치면서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은 상당한 '흔들'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당원 경선이 어려워지는 등 기존의 경선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민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경선 내용이다. 후보들 모두 '아름다운 경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물밑에서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수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들의 이전투구가 거듭되면서 '막장 드라마'가 전개된다면 '새정치'의 바람몰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호남 정치의 미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은 모든 후보들이 나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열한 정책경쟁과 비전 제시를 하면서도 품격과 절제를 통해 '호남 정치의 클래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선이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호남 정치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후보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비우고 '감동의 드라마'에 주연으로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tuim@kwangju.co.kr

은펜클럽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아빠, 이번 기회에 서울 못 오면 앞으로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이제 고3인 막내딸의 이 말을 듣고 서울행을 결심했다. "갈수록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아내의 말에도 뜨끔했다. 생각해보면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때 광주로 왔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고3이 됐다.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떴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광충런(광주총각연합회)'생활을 접었다.

2005년부터 10년간 광주에서 생활을 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러기 아빠는 아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가 말이다. 나이트 아들이지만 오랜만에 같이 생활하게

광주에서 '기러기 생활'을 마치고

되니까 부모님은 무척 반겨주셨다. 필자도 이번 기회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게 돼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런데도 처음엔 퇴근 시간이 쓸쓸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의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오히려 그리웠다. 필자는 딸이 셋 있는데 무척 자주 싸워서 평소엔 아주 골치아파했다. 그런데 떨어져 지내니까 그 소리마저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역시 사람은 부대끼며 살아야 정이 깊어지는 것 같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없는 집을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3개월쯤 지내니까 광주생활에 적응이 돼 갔다. 그동안 못 만났던 동창들 만나고 저녁 시간에 할 일도 갖게 됐다. 무엇보다 광주가 웰빙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전국 최고의 떡거리가 있고 광주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전원풍경을 맞볼 수 있다. 그리고 1시간만 가면 바다도 볼 수 있다. 갈수록 광주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가족을 모두 광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국내 기러기가는 가족을 지천에 두고 주말

마다 만날 수 있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편하고 아내는 그야말로 집에서 밥 한 개 먹지 않은 '영식남'이니까 주부들의 소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삼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면 광주에 단신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이 꽤 있다. 일명 '광충런' 회원들이다. 가족을 위해서 떨어져 사는 것은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한국 남성들의 독특한 자화상이다.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주말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공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위대로운데 말이다.

하긴 진짜 '기러기 아빠'에 비하면 이것은 애기도 안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가구는 115만 가구로 전체 1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인 50여만 가구가 기러기 가족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조사한 조기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매년 2만2000여명이 대외에 합류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는 고독과 생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 기러기 아빠 10명 중 8명 가까이(76.8%)는 영양불량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작은 수입에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송금하는 삶의 무게는 실로 고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면 필자의 광주생활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였다.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더라"이란 책을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가 나온다. 첫번째가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서먹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이제라고 같이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社說

광주 푸른길 공원 '장사판'에 몸살 앓다니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한 광주 푸른길 공원이 하루 1만 명의 유통인구가 이용하는 명소로 우뚝 섰다. 올해로 조성 10년째를 맞은 광주시 남구 푸른길 공원은 산책과 운동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원 내 음식점 인척을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지나친 상업화와 움직임에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낚시를 쪼꾸리게 하는 것은 잡상인과 무질서하게 널려진 플래카드 물결이다. 일부 구간의 경우 잡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걷는 데 불편을 겪고, 불과 500m 거리에 걸린 홍보 플래카드만 50여 장에 달해 공원으로서는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동성중~백운광장 구간에는 음식점과 주점, 커피전문점 등이 빼곡히 들어차면서 이곳을 찾는 취객과 인파로 흥청거리고, 차량 소음과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 탓에 시장에 온 것이 아

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는 진일동 새한아파트 앞 푸른길 공원 내부에 있는 사유지에 음식점 신축 허가를 놓고 소유주와 남구청 간 법정공방도 치열한 상황이다. 푸른길 공원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유 재산 활용을 두고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하는 잡상인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우선 가능한 불법 홍보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잡상인들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특정지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내부의 음식점은 광주시가 부지 매입을 통해 해결하는 게 순리다. 공원이라는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행정관리가 절실하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노출한 한심한 법원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7일 성폭력 피해자 A(여·25)씨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 B(30)씨에게 제공,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B씨에게 성폭력을 당하자 B씨를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하고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인란에 A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해 B씨에게 송부한 것이다. 법원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법원 예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배상명령 신청인을 명확히 밝혀야만 인격사항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상명령 신청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법원이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준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는 인권이다. 엄정한 인권보호의 잣대를 가져야할 법원이 규정만을 닦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소속촉진 특별법 조항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법률 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비록 할리우드가 '전설적인 갱스터'로 분칠을 하긴 했지만 알 카포네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자 중 한 명일 뿐이다. 가난한 나폴리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라이벌 갱단과의 싸움에서 300명 이상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1927년엔 '불법직'으로 1억 달러 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그런 알카피의 대부였지만 무료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병도 양장서는 등 '작은 선형'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수많은 독재·권력자들이 억압과 수탈에 신음하는 대중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뭇 폰의 돈'과 같은 선심을 제공해 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에게 한 줌의 성의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그를 범죄자에게 반쪽짜리나마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의도된 작은 선형'으로 신의 눈을 속이려던 범죄자, 범죄자들에 '간헐한 시도'는 항상 허망한 것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약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그가 법망을 피해 무려 1조 원대의 재산을 쌓아올릴 수 있었던 데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많은 자선을 베풀어 지역사회의 비호를 받은 것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2009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두 범죄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이한 유사점이 발견된다. 가난한 이웃과 측근에게 돈과 일자리를 주고 자선사업에

도 양장서는 등 '작은 선형'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수많은 독재·권력자들이 억압과 수탈에 신음하는 대중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뭇 폰의 돈'과 같은 선심을 제공해 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에게 한 줌의 성의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그를 범죄자에게 반쪽짜리나마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의도된 작은 선형'으로 신의 눈을 속이려던 범죄자, 범죄자들에 '간헐한 시도'는 항상 허망한 것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홍행기경제부redplane@kwangju.co.kr

기고



김석호
(사)한국담배수협회 고충금지부장

최근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흡연의 나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자를 보낸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

담뱃값 대폭 올려 금연 분위기 조성하자

고, 흡연을 일단 시작하면 해로인과 같은 마약보다 더 끊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공중보건 문제의 1위로 흡연을 꼽고 니코틴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해 2조원 이상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 담배판매 중단을 선언한 미국의 대형 편의점 체인 CVS의 결정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환영하는 등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미국을 선진국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부럽기만 했다.

그런데 며칠 전 광역시의회 중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에서 '흡연피해 소송촉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이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정치권에서 '흡연피해 소송촉진'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국

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인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주시의회 의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에 WHO는 건강보험공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담배소송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후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담배 인심 좋기로 유명하다. 담배 인심은 좀 아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 사람이 언제 다시 만나서 갈아 줄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빌려달라는 말에 10명 중 8~9명은 그냥 담배를 건네준

다. 또 청소년들의 흡연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담배 인심이 좋은 이유와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하는 원인이 담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은 아닌지, 담배 가격이 싼 것이 문제라면 사회적 분위기를 담배 인심이 흥흥해지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 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인구 중 4%가 금연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없도록 담배 가격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대폭 인상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금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상한 금액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치료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영세상인 보호 위해 프랜차이즈 규제방안 도입해야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면 동네의 골목상권이 죄다 파괴만 날리고 문을 닫을 지경이다.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 소비자들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도 만들고, 정부는 정부대로 골목상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적제도도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교묘히 한밤중에 오픈하는 곳도 있어서 싸움도 하고 데모도 하는 곳이 있다. 이렇듯 골목상권들에게 대형슈퍼마켓들은 한마디로 공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죽기 살기로 막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대형슈퍼마켓에 맞서는 동안 엉뚱한 공룡들이 골목을 죄다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체인점들이다. 흔히 프랜차

이즈라고 하는 이 체인점들은 SSM보다 크지는 않지만 해당 업종에 관해서는 SSM 뺨칠 정도로 소비자들을 빨아들여서 골목상인들을 힘들게 한다.

예를들어 지금 골목길에 빵집을 보자. 눈만 둘러면 전후좌우 죄다 프랜차이즈 매장 뿐이다. '옛날의 OO빵' 같은건 눈을 찿고 봐도 없다. 이런식으로 프랜차이즈가 업종마다 자리잡는 것은 미장원, 식당, 아이스크림에 심지어 떡볶이까지 죄다 먹어치우는 실정이라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지 않은 영세서민들은 결국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

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브랜드 파워에 영세서민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결국 업종을 바꿔야 하고, 그 업종마저 프랜차이즈가 밀고 들 어오면 끝장이다. 영세서민들은 프랜차이즈가 가맹하고 싶어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목 좋은 상가를 얻기 어려워 그냥 버티다가 문을 닫고야 마는 실정이다.

SSM처럼 이런 프랜차이즈도 영세서민들을 위해 적절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류유공·광주시 남구 서1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체육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2200-541 (F A X 222-0195)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